

광주 북구 일곡동 주민센터 '효맨-자원봉사단'

1,600여 독거노인에 '효사랑 봉사'

23개 경로당-아파트 입주자회 결연 발 마사지·웃음요가·말 벗 돼주기...

"할아버지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건강은 어떠신가요?"

광주시 북구 일곡동 주민센터 직원들과 주민들은 틈날 때마다 동네의 홀로 사는 노인들을 찾아 '효(孝)사랑'을 나눈다.

지난해부터 주민센터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온 '함께 해요, 경로당 돌보미' 사업의 하나다. 관내 23곳 경로당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새마을부녀회·병원·건설업체·상가병영회가 결연을 해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그리웠던 노인들은 이 만남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고, 결연단체 회원들은 독거 노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하며 봉사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들이 '효사랑' 실천에 나선 것은 급속한 고령화시대를 맞아 경로당 회원들의 노년층이 증가하고, 노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하며 봉사하는 기회를 갖는다.

주민센터는 동네 독거노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인정받아 지난해 북구청의 고객만족 우수사례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

다. 이를 계기로 주민센터는 일부 자원봉사단의 활동에만 한정했던 '효사랑 실천'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지역단체를 연합한 전 주민으로 확대했다.

주민과 노인 단체 등은 지난 10일 일곡동 주민센터에서 '함께해요, 경로당 돌보미' 결연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주민센터는 이들 결연단체가 1천600명의 노인들의 가족이 되어 말벗돼주기, 생신잔치, 웃음 요가, 효도관광, 간식 나누기 등으로 심리적 활력을 불어주기도 하고 의료봉사, 발 마사지, 안마 등 프로그램을 함께하면서 신체적 기능 회복에도 좋은 도움을 줄 계획이다.

김은숙(89) 할머니는 "다들 웃는 것도 예쁘고 멀리 있는 아들·딸들 보다 낫다"며 "이들의 방문이 있는 날이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거울을 보고 머리도 곱게 빗으면서 기다린다"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일곡동 주민센터 김희정(여·37) 사회복지 담당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며 "지역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주민 화합과 지역공동체 형성 등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지난 10일 광주 북구 일곡동 주민센터 2층 소강당에서 어르신 돌보미인 '효맨'(Hyo-man) 봉사단이 노인들에게 발마사지를 해주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시, 88올림픽 후 개고기집 첫 단속

음식점 56곳 위생점검

광주시가 이례적으로 여름철 성수식품인 식용견 취급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9일부터 여름철 성수식품 단속차원에서 관내 개고기 취급 음식점 56곳을 대상으로 5개 구청과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시가 간헐적으로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벌인적이

있으나 개고기 취급업소만을 집중 점검하는 것은 88서울올림픽 이후 처음이다.

점검 항목은 원재료의 유통기한 준수, 조리기구와 식당의 청결상태, 종업원 건강, 냉동·냉장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그러나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개가 축산물 가공처리법상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도축, 유통, 원재료 등에

대한 위생단속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즉, 육류의 위생상태 기준이나 법적 처벌근거가 없어 원재료에서 하자가 발견되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점검을 위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만큼 위생점검과 단속근거는 확실하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zenfoot@

16~18일 야생동물 취급업소 특별점검

광주시는 16일부터 18일까지 관내 건강원·한의원 등 야생 동·식물 취급업소에 대해 하절기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구렁이·비바

리범·금개구리·맹꽁이·납생이 등 멸종 위기동물 불법 포획 행위, 야생에서 포획된 뱀·개구리·멧돼지·고라니 등의 가공·유통·판매·알선 행위, 멧돼지 등 32종의 야생동물

을 먹거나 이를 사용해 만든 추출 가공식품 등을 알고 먹는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밀렵된 야생 동·식물을 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생태계 파괴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북구 기초질서 지키기 발전방안 모색 워크숍

광주시 북구는 16일 청사 회의실에서 북구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위원을 비롯한 민간·사회단체, 주민 등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질서 지키기 발전방안 모색'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공중화장실 정비와 거리 청소 등 6대 부문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자유 발표·토의시간을 가진 뒤 남부원 광주 YMCA 사무총장이 '시민단체 시각에서의 제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그동안 북구는 기초질서 지키기 범시민 정착을 위해 시범거리 조성 및 가두 캠페인, 기초질서 지키기 날 지정 운영, 각종 토론회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 왔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모델하우스 축하 화환 대신 쌀을"

광주시 주택업체 대상 사랑의 쌀 나눔 운동

"축하 화환 대신 쌀을 나누시다" 광주시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개관 행사를 갖는 주택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사랑의 쌀 나눔운동'을 추진한다.

아파트 모델하우스 개관때 주택건설업체가 화환 대신 쌀을 받아 소년소녀가장이나 홀로 사는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하자는 캠페인이다.

시는 이를 위해 각 자치구와 함께 주택건설협회 등을 통해 주택건설업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

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이 운동에 참여한 업체에는 리본을 달아 이웃사랑 참여 업체임을 알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축하 화환 1개로 20kg들이 쌀 2.5포대를 구입할 수 있어 모델하우스 개관시 400~500포대의 쌀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택건설업체와 모델하우스 개관 행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하는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대학편입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www.kimyoung.com.kr

대학편입 김영에 맡겨라!

합격편입 / 특수편입 / 사범대편입 / 한양대편입 / 덕양대편입

매일 공개설명회 10시 / 2시 / 4시 / 6시

성원전 대구광역시 중구 동명로 100

김영 대학편입학원

051-261-1111

강한 남 '성'의 힘! MAN2080!

1. 근육량 증가, 체지방 감소, 기초대사량 증가,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해소, 수면 개선, 소화력 향상, 혈액순환 개선, 피부 개선, 두뇌 활성화, 기억력 향상, 집중력 향상, 창의력 향상, 리더십 향상, 협동심 향상, 책임감 향상, 끈기 향상, 인내심 향상, 자기관리 능력 향상, 문제해결 능력 향상, 의사결정 능력 향상, 리더십 향상, 협동심 향상, 책임감 향상, 끈기 향상, 인내심 향상, 자기관리 능력 향상, 문제해결 능력 향상, 의사결정 능력 향상

080-361-7000

광주·전남 가능장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가발 최신제품 70만원

초슬림!!

최상품 화제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귀하의 정취와 만족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대표전화 062-011-2828 07-4622

문장 이수 후미 107-5330